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 각자의 맡은 역할로 이루어지는 성가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을 기쁘게 보낸 후 그 첫 주일을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이루어진 성가정의 모범을 기억하는 성가정 축일로 보냅니다.

성가정이란 말만 들어도, 많은 교우 분들이, 우리 가족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어찌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안과 성가정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가정이란 말은 우리와 그리 동떨어진 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어느 날 묵상하던 중, 만약 요셉 성인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성가정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후론 요셉 성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제 큰누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많은 교우분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묵상하고,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많이들 무관심한 듯하다”고 토를 붙이셨습니다.

저도 누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후론 정말 요셉 성인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가정이란 어느 누구 하나의 역할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아이는?”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는 우리는 늘 문제의 근원을 나 아닌 다른 가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함께 이루셨던 성가정의 모범을 기억합니다. 이 강론을 접하시는 교우분 역시 어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중의 한 분이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도로 피난길에 오르셨고,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던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이 선택해야 했던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기억해봅니다. 성가정이란 싸움 없는 거룩한 모습만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고 마찰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성가정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기쁜 성탄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의 기쁨 안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 봅니다.





제자들

# 마산 ME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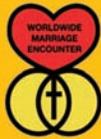
대표 신부

여인석 베드로

대표 부부

최오석 안드레아 ♥ 김안순 안나

<http://www.mekorea.or.kr>



## ME(매리지 엔카운터) 주말이란

“ME란 ‘Marriage Encounter’ 약자로 혼인한 부부들이 더 훌륭한 혼인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말’이라는 표현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부부가 함께 주말을 보내면서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로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ME 주말에서는 더 깊은 사랑의 삶을 위한 대화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ME는 보다 나은 혼인생활을 하고 싶은 부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ME 주말은 가톨릭에서 시작되었기에 신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직자, 수도자, 비신자, 타종교인도 환영합니다. ME 주말은 한 주말에 약 10~20쌍의 혼인한 부부가 참가하실 수 있으며, 아무리 잉꼬부부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혼인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함께합니다.

## ME 주말 중에는 무엇을 하는가?

ME 주말을 먼저 경험한 신부님과 부부들이 한 팀이 되어 ME 주말 중에 참가 부부(성직자, 수도자)들에게 발표를 통하여 도와 드립니다. ME 주말 중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혼인생활을 되돌아보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하느님과 우리 부부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발표팀들이 발표를 통하여 참가자들을 도와드립니다. ME 주말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하여 일요일 오후 5시에 마치며 숙식이 제공됩니다.

## ME에 대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① ME 주말 중에 부부 사생활이 노출 되거나 않을까요?

ME 주말 중에는 부부 사생활이 보장됩니다. ME 주말은 다른 부부와 상관없이 자기 부부만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는 마산 ME 협의회 소속 발표팀만이 합니다. 발표를 들은 후에 부부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 2020년 ME 주말 계획

200차	01.10~12
201차	02.21~23
202차	04.17~19
203차	06.12~14
204차	07.17~19
205차	09.11~13
21차 쇠신주말	11.07~08
206차	11.13~15

## ② ME가 과연 혼인생활을 풍요롭게 하는지요?

ME는 부부가 상호 이해와 사랑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ME 주말에서 익힌 새로운 방법으로 부부들은 혼인생활을 기쁘고 풍요롭게 지속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ME 주말 후에도, ME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더 나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ME 주말의 효과!

- ① 신혼의 뜨거운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배우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 ② 자녀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줍니다. 매일 매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줍니다.
- ③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 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줄 때 삶의 의욕이 샘솟고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④ 문제 있는 부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부부가 참여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 ME 주말에 참가를 원하시면~

ME 주말에 참가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마산 ME 주말분과 신청담당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 각 본당 ME 협의회 또는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마산ME'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마산 ME 협의회 주말분과 신청 담당

한진우(미카엘) 010·9150·8738 문희숙(미카엘라) 010·6281·7859, e-mail : mun760216@hanmail.net

## ME 퀴즈~~!!

1. 한국에서 ME 첫 주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① 1956년    ② 1976년    ③ 1996년    ④ 2006년
2. 2020년 1월에 열리는 마산 ME 주말은 몇 차일까요?  
① 10차    ② 100차    ③ 200차    ④ 500차
3. ME 주말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을까요?  
① 천주교 신자들만 참가 가능하다.  
② 천주교, 기독교 신자들만 참가 가능하다.  
③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인만 가능하다.  
④ 천주교, 기독교, 불교, 비신자 등 모든 사람이 참가 가능하다.

정답은 1-②, 2-③, 3-④



# SKY 캐슬

김승태 마티아 신부



작년 이맘때쯤,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한 편이 있었다. 그 제목은 SKY 캐슬이다. 그다지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았던 나로서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신기했다. 한 회, 한 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들이 여러 TV 프로그램에 초대손님으로 등장하곤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대사가 유행어처럼 퍼져나가기도 했다. 그 중에,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감수하시겠습니까?”라는 명대사를 남긴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의 모습은 여전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드라마 내용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스카이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라 소개한다. 다시 말해, 드라마는 SKY 캐슬이라는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려고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는 오늘날의 현실도 함께 비춰준다. 이웃 주민이라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멀고, 서로를 화려했고 격식있게 대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현실을 잘 그려낸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성모상이 나왔을 때였다. 더 자세

하게 이야기하면, 성모자상이 나오는 장면이었다. 드라마 초반에, 영재의 어머니(이명주 역)가 여행 후 이웃 주민들에게 성모자상을 선물한다. 그리고 어렵풋하게 등장했지만 광장 같은 곳에 서있던 상도 성모자상이었다. 이 모습을 보니 여러 의문들이 생겨났다. ‘종교적인 드라마도 아닌데 왜 성모자상을 보여주는 것일까?’ ‘드라마 감독은 무엇을 의도했기에 이 장면을 넣었던 것일까?’

성모자상은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성모자상은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보니 SKY 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이웃 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제대로 자신의 품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입시 지옥으로 밀어 넣는다(자녀들을 자신의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밀어낸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보면, 사람들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자신의 상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른 척하고 혈뜬는다(자신의 품을 내어 주지 않는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성모자상은 하나의 길잡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지옥 같은 현실에 가톨릭이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다(현실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의 후반부로 갈수록 성모자상의 모습은 등장 인물들의 모습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드라마의 후반부로 갈수록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안아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는다. 이웃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품에 안는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은 우리의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 주고 있다.

# 은 퇴 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사제직을  
마무리하는 신부님의 은퇴식을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성학(아브라함) 신부



황봉철(베드로) 신부

-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10:30
- 장소: 천주교 마산교구 태평동성당

1부 은퇴미사/ 허성학 신부, 배기현 주교 집전  
2부 은퇴식/ 축사: 송기인 신부, 함세웅 신부,  
시조: 천금태 시인, 헌사: 강희근 시인  
3부 환송연/ 건배와 답소

## 약 력

1977.12.28 사제품  
1978~1979 남성동 보좌  
1979~1982 남해성당 주임  
1982~1985 문산성당 주임  
1985~1988 여좌동성당 주임  
1988~1992 중동성당 주임  
1992~1995 봉곡동성당 주임  
1995~2000 가음동성당 주임  
2000~2003 옥포성당 주임  
2003~2007 상평동성당 주임  
2007~2009 장재동성당 주임  
2009~2014 양덕동성당 주임  
2014~2017 창녕성당 주임  
2017~현재 태평동성당 주임

- 일시: 2020년 1월 12일(주일) 10:30
- 장소: 천주교 마산교구 창녕성당

## 약 력

1980.06.27 사제품  
1980~1985 유학(인스브룩 대학교)  
1986~1988 하동성당 주임  
1988~1990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990~1993 거창성당 주임  
1993~1998 구암동성당 주임  
1998~2002 중앙동성당 주임  
2002~2005 용잠성당 주임  
2005~2011 옥봉동성당 주임  
2011~2016 고성성당 주임  
2017~현재 창녕성당 주임



#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현기호(시몬) 신부  
1985년 12월 30일

## 교구장 동정

### 신년미사

일사: 1월 1일(수) 08: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성경봉사자 파견식

일사: 1월 4일(토)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교구/본당

### 수품자 피정

일사: 12월 31일(화)~1월 6일(월) 6박7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문의: 성소국 055·249·7061

### 교구성경봉사자 피정 및 파견식

일사: 1월 3일(금)~1월 4일(토)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 도래사도 양성연수

일사: 1월 3일(금)~1월 5일(주일) 2박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2~3

## 위원회/기관/단체

### 명례성지 미사안내

송년감사미사: 12월 31일(화) 16:00  
신년 해맞이미사: 1월 1일(수) 06:45  
미사 후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사: 1월 5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병원 미사 안내

마산: 마산의료원 매주(화) 18:00  
지하 1층 대강의실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원: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5: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주: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원: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첫째 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첫째 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채용분야: 주방 직원 1명 (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 추천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마감: 1월 7일(화) 15:00 (방문, 우편, e-mail / 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 수도회

### 2020년 살레시오 수도회 겨울 성소대피정

대상: 예비 고3, 성인 일반(만 33세 이하)  
일사: 2020년 1월 31일(금)~2월 2일(주일)  
장소: 돈보스코청소년센터(서울 여의대방로 65)  
문의: 010·5159·3949, 010·3894·1332

## 기타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 로스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상: 여대생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의: 02·741·3071/ 010·7740·071

###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대학원 음악학과 전기 2차 신입생모집

지원자격: 대학전공 무관  
원서접수: 12월 24일(화)~2020년 1월 6일(월)  
전공: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작곡, 지휘, 오르간, 피아노반주, 문화예술경영  
문의: 053·850·3803

### 2020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문의: 043·270·0100

### 2020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정시 신입생 모집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보건복지교육계열 특성화 4년제 대학  
호남지역 사립대 취업률 1위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학과 10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인터넷 원서접수처: 유웨이  
입학상담: 061·280·5108, 5150

### 2020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선발 '군': 18개 학과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선발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방법: 홈페이지 ipsi.cup.ac.kr 참조  
입학상담: 051·510·0702(입학처 김종진 모세)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일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39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기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양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중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 마르크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꿀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 천차만차

##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일림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

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관람 안내

교황청이 최초로 외부에 제작 의뢰하여 만든 영화  
개별 관람 사: 친원 할인 (교구보 영화 안내문 제시)  
단체 관람 문의: 양종곤 피디 010·9023·6797  
100명 이상: 원하는 극장과 시간대에 선택 가능  
20~99명: 근처 상영관에서 원하는 시간대  
선택 가능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3급 자격과정 안내

주관: 마산교구가톨릭상담심리학회  
과정: 3급 1·3주 (토)09:00~16:00 3월 7일 (토) 개강  
2급 2·4주(토)09:00~16:00 3월 14일 (토) 개강  
장소: 함안 '우리농 교육장'  
수강료: 30만 원(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  
천주교마산교구유지재단)  
마감: 2020년 1월 17일(금)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 2020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서품식

일시: 1월 7일(화) 14: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주례: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 첫미사 |



서시문 시몬  
진영성당  
1월 9일(목) 19:30



조현석 엑스수페리오  
석전동성당  
1월 9일(목) 19:30



이승언 토마스 아퀴나스  
덕산동성당  
1월 8일(수) 19:30



김동윤 율리아노  
호계성당  
1월 8일(수) 19:30



### 송년 낮피정

주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4,16)  
강사: 신상현(야고보) 수사  
-세계성령봉사회(카리스 임원)  
-한국성령생신봉사회 국제위원  
-예수의꽃동네제회부총원장  
미사: 최재상(마티아) 신부  
일시: 12월 30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문의: 010·9421·3377/ 010·2585·8919

### 산호동성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윤덕봉(F.하비에르)  
사목부회장(남성): 권택성(스테파노)  
사목부회장(여성): 이예선(마리아)  
총무: 신용원(스테파노)  
재경분과장: 윤석고(안셀모)  
전례분과장: 백희선(크리스티나)  
복음화분과장: 강월숙(가브리엘라)  
구역분과장: 윤재선(카타리나)  
사회복지분과장: 이복남(레아)  
청소년분과장: 박철우(바오로)  
가정사목분과장: 도준희(히아친타)  
시설분과장: 김창희(요셉)  
홍보분과장: 심은애(로사)  
40년사 편찬위원장: 손재곤(요아킴)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 구	12월 30일(월) 19:00	월남동성당	찬양과 대화	이란(제노베파, 전국 추천 위원)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송년 낮피정이 있습니다.					
진주지구	12월 30일(월) 19:30	옥봉성당	평화를 빕니다	김정훈 신부(도미니코)	김정훈 신부	010·9677·4224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p><b>라파엘여행사</b></p> <p>◆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3/29, 4/20, 5/6(289만원)</p> <p>◆ 이스라엘 9일 3/30(299만원)</p> <p>◆ 이탈리아 9일 3/12(279만원)</p> <p>◆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p> <p>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p>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p> <p>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p> <p>비누 만들기 강좌</p> <p>www.jhsc.or.kr</p> <p>055.541.0126, 055.605.6297</p> <hr/> <p>우리농 직매장 2호</p> <p>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p> <p>가톨릭여성회관 입구</p> <p>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p> <p>055.293.5605</p>	<p>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산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p> <p>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p> <p>*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hr/> <p>정용근 내과 의원</p> <p>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p> <p>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p> <p>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p> <p>055.713.7771</p> <p>원장 정 용 근 프란치스코</p>	<p>(주) 성운고속관광</p> <p>"신자분 우대 합니다"</p> <p>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p> <p>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워딩 가족관광</p> <p>대표 김종규 바오로</p> <p>010.4588.3448/055.273.0505</p> <hr/> <p>명례성지 소금 판매</p> <p>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p> <p>합초 소금 200g 1만 원</p> <p>신청: 055.391.1205</p>
--	---	---	--

# 예수님 맞으러 갈까요?

서정홍 안젤로 시인/가톨릭문인회

해월 최시형 선생은 하늘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한다고 했으며,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밥 한 그릇을 제대로 알게 되면 만사를 다 알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밥을 후닥닥 때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와 농사지으면서 문득 저를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 속에 제가 도시에 살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여태 먹는 데 의지하고 살아온 보잘 것없는 제가, 목숨 살려준 밥을 모시지 않고 때우고 살았으니 어찌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스무 해 전쯤, 산골 농부가 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아내와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친구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산골에 가서 무어 먹고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먹고사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그러나 먹고살 수 있게 봄여름가을겨울 묵묵히 땀 흘리며 농사짓는 농부를 단 한 번도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제 둘레에는 농부를 존중하거나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도 없었고 선배나 스승도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고 돈벌이 안 되는 직업 가운데 가장 선택하면 안 될 것이 농부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스무 해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더 게걸스럽고 약아빠진 세상에 어김없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이 꼬락서니란 말이나? 먹고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농부와 노동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먼저 감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나? 너희들은 알고나 있느냐? 지난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2,142명이나 된다는 것을. 지난해도 올해도 하루 약 6명이나 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더구나 농민 재해율이 전체 산업 근로자의 재해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10.15. 한국농어민신문)고 하는 데도, 그들을 위해 거리에 나가 단 한 번이라도 촛불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가을걷이가 끝나면 한 해 쓴 농자재 값과 빚을 갚고 나면 ‘가을저지’가 된다는 농민들을 섬기지는 못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겠느냐? 이천스무 살 맛이 기념으로 내가 거나하게 술 한 잔 따를 테니.”

땀 흘리며 일해서 먹고살 생각은 않고 입과 머리(지식)로 먹고살 생각을 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비겁하고 위험한 세상에, 예수님이 따르는 술 한 잔 떼뻗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낫짝이 달아올라 문밖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복 음 마태 2,13-15,19-23

주일 진례